

## 광주 '학교자치 조례' 격론 예고

### 전교조측, 2만여명 서명 입법 추진...교장 권한 대폭 축소

광주시 교육청 개청 이래 첫 주민 발의로 제안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학교장들이 학교운영 권한 축소를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교육청에 제출돼 법적 요건인 조례 제정 청구인들의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제정은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 제정 운동본부'(상임대표 임주섭)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2만 3000여명이 서명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직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자치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교사회'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을 논의한다. '학생회'는 학생자치,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학부모회'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할 사항, 학부모 동아리 개설 등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인사·예산 등의 사안을 학내 자치기구에서 다루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약화시키고,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10조 교원인사위원회 조항의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무위원회

에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학내 보직 등 내부인사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존에 교장이 도맡아 처리해온 사안이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장은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을 위해 교직원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보직임명 등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회에 예산편성을 제안하도록 한 대목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예산편성은 학교장 주도로 행정실에서 전체수요를 파악,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중학교의 한 교장은 "자치기구에 제안한 예산액을 반영하다 보면

학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학생·학부모·직원회 등 학내 4개 자치기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학교운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교육청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께 이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주섭 학교자치 조례제정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학교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 뿐, 교장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법정구속이 결정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구치소로 데려가기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심문에서 박 의원은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기구한 박주선

### 광주고법 구속 수감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환 부장판사)는 17일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현재도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변경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초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일단 박 의원을 귀가시키고 며칠간 영장 발부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35분간 심문한 뒤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1심 재판부에서 요청한 체포동의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하는 것은 1심의 구속 의도가 항소심에 기속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체포동의안이 절차적인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정구속

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지난달 30일 박 의원이 항소해 재판 관할권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넘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해파리 제거 국비 2억 지원 요구

전남도는 17일 최근 급성을 부리고 있는 해파리(광주칠보 17일자 1·3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 2억원을 긴급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지난 9일 여수 가막만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후 신안 등 전남 해역에는 지속적으로 해파리가 출현하고 있다. /오광욱기자 krah@kwangju.co.kr

## 태풍 '카눈' 북상 200mm 비

### 광주·전남 전지역 태풍 예비특보

18~19일 광주·전남지역은 제7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현재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는 카눈(중심기압 992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2m)의 영향으로 18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19일까지 이

어지겠다. 강수량은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은 60~12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최고 200mm까지 예상된다. 기상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되면서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과도는 남해서부 해상에서 3~6m, 서해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 전지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맛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에 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 8월 20일~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 8월 6일~ 8월 20일  
입학 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檢, 박지원 원내대표 내일 소환 통보 박 "돈·청탁 받은 일 없다" 불응할 듯

저축은행 비리 활동수사단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에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헤지저축은행 등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원내대표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 결정은 대선자금 물타기와 대선을 앞둔 공작수사의 일환"이라며 "최근 열린 민주당 정치검찰공작 수사대책특위에서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IOPE 스킨리포트

###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eing  Pore Care  Trouble Care  Sun Care  Hydrating